

‘다이내믹 코리아’의 원형 신화·설화서 찾는다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
손석춘 지음



단군신화와 ‘처용’,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자 호랑이’, ‘아기장수’, ‘호랑이눈썹’ 설화... 철학자 손석춘은 수천 년에 걸쳐 구전돼 오며 사랑받아온 우리 신화와 설화를 ‘사회서사 이론’으로 분석하며 한국의 고유한 철학의 원형을 탐색한다.

“한류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한 철학을 모른다면, 외국인들의 물음에 아무 말도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철학이 눈부시기에 더욱 그렇다.” 저자는 신간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 머리글에서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며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이내믹 코리아’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인류 문명을 열어갈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부제 ‘한류와 다이내믹 코리아의 뿌리’를 붙인 이 책은 1장 ‘꿈의 동굴과 산신 단군’, 2장 ‘처용의 춤에 소월의 시를 읽는다면’, 3장 ‘한국인에게 해와 달은 무엇인가’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된다.

저자는 단군신화를 시작으로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고려시대 일연 스님이 1281년 편찬한 ‘삼국유사’ 기이 편에 수록된 단군신화의 고갱이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또한 단군신화 심층에 있는 사회서사를 짚으면서, 이야기에 담긴 사회적 함의에 대해 ‘동굴의 성찰은 사람 내면의 탐색을, 산신의 부름은 더 나은 사회로의 끊임없는 염원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수천 년을 이어온 단군신화의 소통으로 한국인 다수의 심층에는 실천적 사회서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



한국 신화·설화에 뿌리를 둔 한국인의 철학은 인류세의 위기를 넘어설 씨앗을 품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국회에서 당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 <광주일보 자료 사진>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역동성으로 파악한 ‘다이내믹 코리아’의 원형을 단군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처용설화’는 새롭게 해석된다. 처용은 이슬람 상인이 아니라 ‘해안 지역의 호족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폐쇄적인 신분제도 하에서 ‘나라의 병폐를 치유하려는 개혁자’임을 이룰 수 없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체계’에 시달리던 민중들은 문 앞에 처용의 얼굴을 붙이는 무언의 항거를 했다. 이는 ‘대중매체가 없던 전근대 시대에 모범적인 민중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했다. 이러한 민중의 정한(淸恨)은 1000년을 건너 뛰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각 장(章) 사이에 ‘정검돌’ 코너를 마련해 ‘처용탈’과 고운(孤雲) 최치원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하며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민중의 사랑을 받았던 처용탈은 수많은 고운(孤雲) 최치원의 얼굴일 수 있

다. 신화와 설화, 단제 신체호의 소설 ‘꿈하늘’에는 공동적으로 산과 하늘이 단골로 등장한다. 신간의 내용들은 친숙한 신화·설화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한류(韓流) 뿌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단군신화 신시(神市)의 꿈은 수천 년에 걸쳐 동학의 인내전 사상, 최근의 촛불과 응원봉 정신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달은 글’에서 신간 집필 의도와 바람을 강조한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금강석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물론 한국문화에 다가서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한국문화의 저류에 담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구촌의 인류가 막다른 문명의 골목을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길에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서다.”

<철수와영희>·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세컨드 브레인(에머런 마이어 지음, 서영조 등 옮김)=인류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장과 뇌는 이처럼 연결돼 있는데 제2의 뇌인 ‘장’은 하루 스물네 시간 뇌와 소통하면서 우리의 의사 결정에 관여를 한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00조 마리에 달하는 장내 미생물이다. 행복을 위해 장내 건강과 미생물을 관리해야 하며 식단 조절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레온한스문>·2만2000원

▲조선사 개념어 사전(유정호 지음)=조선사 500년 동안 총 네 번의 사회를 비롯해 반정, 예송과 한국이 각각 두 번씩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용어들이 담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책은 조선사를 대표하는 개념어들을 비롯해 봉당, 연호, 열하일기, 4군 6진 등 다양한 개념 870개를 정리한다. 당대 국왕 27명은 물론 조선 건국부터 세도정치 시기까지 격변했던 과거 ‘언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조선사 이해를 돕는다. <믹스커피>·2만5000원

▲나를 지키는 민법(장보은 지음)=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민법은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가정마다 한 권씩 민법책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 꺼내 읽을 정도다. 위기의 순간 나를 구해주는 민법에 계약부터 임대차, 소유권과 공시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본다. 익숙한 개념부터 시효제도, 인격권, 이혼과 관련된 분쟁, 재산법과 가족법 등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할 민법 상식을 망라했다. <생각의 힘>·1만8000원



▲지적 생활의 즐거움(P.G. 헤머튼 지음, 김옥 율음)=지적인 본능과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인문학 통찰을 전한다. 지적 생활을 위한 신체적 단련법, 현실적 고민들, 지적 생활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나눠 지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100여 년 전 글을 편역한 것으로 칸트론 등 여러 지식을 다루면서도 시간의 중요성, 지식 넓히기의 장단점, 지적 충만감과 빈부의 관계 등 현실적인 요소들도 두루 살핀다. <책읽는고양이>·1만7500원

이번엔 발레다...온다 리쿠의 세번째 예술가 소설

스프링

온다 리쿠 지음, 이지수 옮김



온다 리쿠의 소설 ‘꿀벌과 천둥’은 국제 피아노콩쿠르를 무대로 펼쳐지는 연주자들의 이야기다. 작가는 소설의 모델이 된 하마사쓰 콩쿠르를 수년 간 취재한 후, 2주간의 콩쿠르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피아니스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들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면 마치 경연을 직접 관람하는 듯한 기분에 빠져든다. 응원하는 인물이 콩쿠르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가 들려주는 음악은 어떤 곡일지 기대하며 마음 졸이기도 한다.

온다 리쿠가 소설 ‘스프링’을 통해 이번에는 ‘발레’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꿀벌과 천둥’, 연극을 소재로 한 ‘초콜릿 코스모스’와 함께 ‘예술가 소설’ 3부작을 마

무리하는 작품으로 그의 데뷔 30주년 기념작이기도 하다. 작가는 6년 동안 클래식 발레와 컨템퍼러리 무용의 세계를 탐구하는 등 구상부터 집필까지 이 작품에 10년의 기간을 쏟아 부었다.

주인공은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천재 발레 소년 요르즈 하루. 저자가 “지금까지 여러 소설을 썼지만, 이렇게까지 주인공과 사랑에 빠진 적은 처음”이라고 고백한 매력적인 캐릭터다. 무용가로서 하루의 성장기와 그가 만들어가는 발레 작품, 그와 교류하는 동료 예술가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소설은 재미있게 읽힌다.

‘뛰어오르다’, ‘썩트다’, ‘솟아나다’, ‘봄이 되다’ 등 모두 4부로 구성된 소설은 각각 다른 화자가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때론 공통의 이야기와 작품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묘사돼 흥미롭다.

첫 번째 화자는 발레 학교에 함께 다니 친구이자 동료 무용수인 후카스 준. 첫 만남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알아챈 준의 시선으로 하루의 청소년기와 ‘야누스’ 등 그가 안무한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두 번째 장에서는 명문학 교수인 미노루 삼촌이 하루의 어린 시

절부터 한 인간으로, 예술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들려준다.

3부를 이어가는 화자는 어린 시절 함께 발레를 했고 하루가 안무하는 작품의 곡을 써주는 작곡가 가키자와 나나세다. “하루가 춤추면 밝고 큰 공간이 느껴져 세계가 확장된 듯한 착각이 빠져들고, 그의 춤에서는 언제나 음악이 들렸기에” 나나세와 하루는 서로의 뮤즈로 여러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마지막 4부는 독무 ‘봄의 제전’ 작업 과정과 초연무대를 중심으로 하루 본인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발레는 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쇼팽 ‘즉흥곡 3번’, 존 코트레인의 음악 등 ‘스프링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니 책을 읽을 때 배경 음악으로 들으며 하루가 안무한 발레 작품을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레리노 김기민, 전민철의 모습이 떠오른다. 더불어 연극 무대에 서는 소녀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예술가 소설 ‘초콜릿 코스모스’도 읽고 싶어진다. <클레이하우스>·1만9800원 /김미은 기자 mekim@



▲사냥꾼의 죽음(세연 지음, 김주경 그림)=꿀을 받아먹고 날갯짓을 하던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리고 만다. 굶주린 거미는 나비를 잡아먹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새는 거미를 낚아챈다. 죽음이 다른 생명으로 연쇄되는 순환 속에서 사냥꾼 한 명은 호랑이를 마주한다. 호랑이를 사냥해 들만에 버리지만, 그 또한 다른 ‘살’으로 연계된다. <다림>·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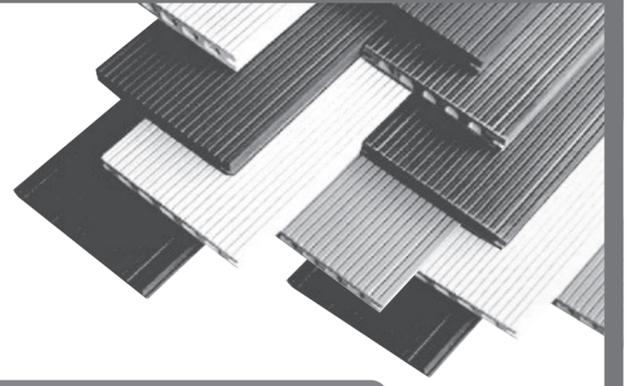
▲이빨 요정의 보물 창고(마루아마 아야코 지음, 김윤수 옮김)=이가 빠져버린 날, 이빨 요정 북북쥐가 상냥감을 통통 두드리며 마법처럼 찾아와 마음을 위로한다. 북북쥐는 유진이의 이가 빠진 것을 추

하한 뒤 주문을 외우고 모험을 시작한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부모 세대로 거쳤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자라나는 동심을 다독인다. <주니어영양사>·1만4000원

▲이런 멋진이들(김유대 그림)=전신이 겹겹이 둘러싸인 딱정벌레는 기록된 것만 35만 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스텔리타 꽃무지, 십육점박이 사슴 꽃무지, 수염뿔이 등 딱정벌레들을 삽화로 소개하고, 그들이 품고 있는 풍경을 이야기한다. 황금왕관을 쓴 외계 임금님, 꽃 피우길 기도하는 달 토끼 등 여러 동·식물에 딱정벌레를 빗댄다. <이야기꽃>·3만8000원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